



주 제:	“기다림”	“대림 제 3주일”	2007년 12월 16일
복음 묵상:	마태 11,2-11	이사 35,1-6 가. 10	야고 5,7-10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와 만나 세례를 주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인지하며 다시 한 번 희망을 걸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증의 희망입니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컴컴하고 좁은 감옥에 갇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예수의 위상에 희망을 두며, 그에 대해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고통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도 한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발전하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세례자 요한 또한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라는 빛을 보았고, 확신을 얻었으며, 이제 기다림이라는 목적을 이루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상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느님만 아신다."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와 고통이 아니라, 희망과 평화, 사랑의 의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 속에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 속에서 선택만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의 의미를 신심으로 연결시켜 주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안동 최 장원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성탄절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단원님들이 연습에 좀더 박차를 가해 좋은 성가로 아기 예수님을 맞자는 강력한 의견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리며 다음과 같이 연습시간을 연장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마지막 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 12/16 과 12/23 은 오후 5 시까지 연습시간을 연장합니다.
수요일 : 12/19(수)는 지휘자님의 요청에 따라 가감할 예정입니다.
- 조 율리안나 자매님 약 2개월 반의 예정으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여행중에 건강히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2. 공지 사항 및 기도 요청

12월 2일 하려던 성심 성가대의 총회를 불의의 개인적인 일로 다음으로 연기 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일자와 장소는 년말 파티와 함께 총회를 할 예정이오며 12월 30일 (일) 본당에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가족은 연락 주십시오.

김 지만 토마스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1분 명상

“하루를 감동의 선물을 해주는 사람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가장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속삭임이 다정한 사람
마음속에 희망을 주는 사람

작은 메모지에
사랑합니다 라고 써 주며
하루를 감동의 선물을 해 주는 사람

내 무지함을 뛰어난
장점으로 승화 시켜주는 사람

하늘이 푸르다는 것을
미소로 일깨워주는 사람
어떠한 좋은 일을 해 놓고도
말없이 미소 짓는 사람
하찮은 일이라도 귀찮아 하지 않는 사람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한
해와 달의 속삭임처럼
은은한 미소를 가진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